

백승주 ‘재산·거주지’…윤난실 ‘시민추천 절차’ 집중 검증

전남광주시의회,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파트 매입·농지 추궁…배심원 교체·법규 위반 지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인사청문회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지역 거주 문제, 윤난실 시민추천부시장 후보자의 시민추천 절차와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정점으로 떠올랐다. 두 후보자는 향후 선거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통합시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고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통합시 출범 3개월 만에 진행된 이번 청문회에서는 민형배 시장을 보좌할 정무직 부시장

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준비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백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서울 강남 아파트 매입 경위와 배우자 소유 농지의 경작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은 청문회 시작 직후 개포주공 4단지 아파트 계약서와 사외이사 보수 현황, 배우자가 보유한 농지의 필지별 사용 내역 등을 요구했다. 백 후보자가 해당 농지는 해남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직접 경작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자 강 의원은 필지별 농지대장 제출을 추가로 요청했다.



백승주



윤난실

이현명 의원(민주당·진도)은 백 후보자가 해의 근무 중이던 2013년 개포주공 4단지를 매입하고 2016년 전입한 뒤 재건축이 이뤄진 점을 들어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백 후보자는 “제가 샀을 때부터 재건축 예정 단지였다”며 귀국한 뒤 한참 지나 재건축이 진행됐고 실제 임주는 2022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전에 거주했던 아파트도 재건축했다는 점과 기획재정부 재직 경력을 거론하며 시민들이 의구심

을 가질 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서울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온 문제를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박만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44년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에 뒀다며 전남광주로 생활 기반을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백 후보자는 자녀 교육 문제로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내려와 지낼 수 있다고 답했다.

임형석 청문위원장(민주당·광양1)이 부시장 후보자로 청문회를 받는 상황에 서도 주소지가 서울인 점을 지적하자 “여기서 생활하게 되면 이곳으로 당연히 주소를 옮기려 한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질문도 나왔다. 손남일 의원(민주당·영암2)이 지난해 지역 농산물 수출액을 묻자 백 후보자는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한다며 언론을 통해 본 김 수출액을 언급했다.

질문한 농산물 수출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합시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이현명 의원이 내후년 총선 출마설을 거론하자 백 후보자는 “통합시를 성공시킬 생각만 하고 있고 다른 생각은 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 선출을 위한 시민추천제 운영 과정이 쟁점이 됐다.

임미란 의원(민주당·남구1)은 시민배심원 108명 가운데 21명이 이틀 만에 교체됐고 윤 후보자의 지인들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노진성 의원(민주당·동구2)은 윤 후보자가 부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실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절차의 공정성을 따졌다.

윤 후보자의 정치 이력과 향후 출마 여부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박상길 의원(민

주당·남구2)은 통합진보당 광주시장 후보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광산구청장 선거 등에 도전한 이력을 거론하며 다시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윤 후보자는 “산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것 외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고민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질타가 나왔다. 문예준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윤 후보자의 2021~2024년 속도위반이 총 13건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시민추천부시장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윤 후보자는 귀가 경로에 있는 초등학교의 단속카메라 설치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하면서 “자기관리에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전남 우수건축물 대상 구례 포레스톤 최우수상…여수 여운항·담양 지곡당 우수상

나주 공산면에 들어선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이 '2026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대상을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역 건축문화 발전과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한 우수건축물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인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을 비롯해 구례 '포레스톤'이 최우수상, 여수 '여운항'과 담양 '지곡당'이 각각 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지난 7~8월 총 14개 작품이 접수됐다.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디자인과 기능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지역적 특성 등을 평가했다.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은 남도 의병의 역사와 정신을 담은 공간 구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건축공간에 구현하면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점도 인정받았다.

포레스톤은 효율적인 공간 구성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돋보였다. 여운항은 바닷가에 자리한 입지적 특성을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살려 해안 조망을 건축공간에 담아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곡당은 지역의 예술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쉼터로 조성됐다. 무등산 조망과 잔디 마당을 활용해 주변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는 공간을 구성한 점을 인정받았다.

선정된 건축물에는 기념 동판을 부착하고, 설계·시공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상장과 상패를 수여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건축문화제' 특별 전시를 통해 시민에게도 소개할 예정이다.

임진출 전남광주특별시 건축개발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담은 우수한 건축물이 확산되도록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산구 더불어락노인복지관 토크 콘서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더불어락노인복지관 (관장 김백수)은 6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 선배시민봉사단 페스티벌 '지금이 전성기'를 토크콘서트를 실시했다.

전남광주 상수도본부, AI 민원 해결사 도입

이물질·흙탕물 등 12가지 민원 해결책·담당부서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시민들이 수도물 이용 중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우리집 수도물 민원 해결사'를 자체 개발, 서비스에 들어갔다.

'우리집 수도물 민원 해결사'는 필터 변색, 이물질 발생, 소독약 냄새, 흙탕물, 청록현상, 백수현상, 요극 문의 등 시민들이

자주 겪는 12가지 수도물 관련 현상들을 유형별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시민이 해당 현상을 선택하면 주요 발생 원인과 조치 방법 등을 안내한다.

그간 소독약 냄새나 필터 변색 등 수도물에 이상이 생겨도 정확한 원인이나 담당 부서를 찾기 어려워 여러 부서로 중복 문의하는 불편이 잦았다. 이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 불편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

담당 직원들의 반복적인 전화 안내 업무 효율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가정 내 1차 조치 후에도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이상 현상과 거주 지역에 따른 담당 부서와 직통 연락처를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속한 상담이 가능해졌다. 이 서비스는 수질연구소 문수진·류미금 주무관이 추가 예산이나 외부 개발 용역 없이 바이브 코딩(AI)을 업무에 적용했다.

'우리집 수도물 민원 해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지하철타고 총장축제까지' 광주교통공사 혜택 '팡팡'

광주교통공사는 8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급남로4가역 지하 1층 대합실(지하상가 방면)에서 '대중교통 알리기 버스'를 운영한다.

'2026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를 찾는 시민들에게 도시철도의 편리한 이용 방법을 알리기 위함이다.

현장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함께 광주G-패스, 교통약자 모바일 승차권 등 주요 교통서비스를 소개한다.

특히 이날 도시철도를 이용한 시민 선착순 100명에게 2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플랫폼임 등 시민 참여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공사는 총장축제 기간 급남로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역사와 승강장 등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질서유지와 승객 혼잡 관리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축제장을 오가는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를 타고 총장축제를 찾아 가을의 정취와 축제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KH MEDICHECK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60415-중-211304호

건강검진

매일체크✓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